

맘 요한복음: 하나님의 열심이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성경말씀: 요2:13-22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제자들을 부르심, 그 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
순식간에 물이 포도즙, 완벽한 변화, 시공간을 초월함, 인간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줌
포도즙은 기쁨, 인생에서 필요한 때에 기쁨이 없어지면 예수님께 알려야 한다. 영원히 채워 주신다.
요한 2장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열심 < >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13)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13), 세 절기: 유월절(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신16:16).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장막절(10월)에 공생애 유월절 세 번(4월 초순)
예수님의 행적: 바리새인 중 종교인들이 속박의 굴레로 만든 인간의 규례들은 고의로 부숨, 그러나 그분은
철저한 유대인, 율법 아래 태어나심(갈4:4), 구약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히 지키심
그분의 삶에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않게 하심(마5:17)
가나 혼인 잔치, 북동쪽 30킬로미터 떨어진 가버나움(12), 며칠을 보내고 예루살렘, 직선거리 100킬로,
수많은 사람들, 드디어 도착, 길거리에 기념품 파는 사람들, 약 200만 명,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주님이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음

예루살렘 방문에서 먼저 열심을 보여 주심(14-17)

성전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모여 들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탐욕의 기회로 삼았다.
외국인(외국에 사는 유대인): 외국 돈을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꾸는 일(외국돈은 No!), 반 세겔(출30:13;
느10:33-34), 반 세겔 은으로 8그램(2돈), 지금 가치 약 6000원, 그런데 돈을 바꾸면서 2시간
인건비 부과, 15,000원 정도 더함

유대인들은 희생물 바침, 이들을 위해 짐승 판매: 조사관, 18개월 동안 훈련, 정결한 것과 부정함
감별,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문제가 되는 짐승도 감별, 대제사장 안나스의 비호 아래 이루어짐
처음의 목적: 좋은 의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 편의 제공, 시간이 지나면서 편의가 사업이 되고 많.

어디서: 이방인들의 뜰,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접촉,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여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함, 진리를 찾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초장부터 길이 막힘

주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짐승들 매매 소리, 동전 오고가는 소리, 종교 서커스, 소동의 장소
이때에 갑자기 주님은 성전 정화 시작(14-15)

우리는 채찍을 든 주님의 분노를 본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사랑의 예수님, 그러나 공의와 분노의
주님, 이유(16),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돈 버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

성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왕상8:10-11)

제사장들은 말로는 영광, 그러나 실제로는 돈벌이, 극도의 위선

성전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드러냄

제사장들의 타락: 영적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며 희생물을 드림

권위를 가진 자들, 그것을 돈 버는 일에 사용하여 부자가 되려고 함

그 결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떠남(에스겔서 영광이 떠남, 열망)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진물 중요하다. 외적인 것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영광이
우리의 예배(사적 공적 예배)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심히 미워하신다. 극도의 분노와 채찍질

하나님을 작은 거인 취급하지 말라. 어디에서든, 특히 공예배에서

그러면 예배가 난잡해진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주인이다”. “아니요. 내가 주인입니다” 안 된다.

제지들의 반응(17): 시69:9, 69편은 메시아 시편,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인용됨(69:4(요15:25),
69:8(요7:3-5), 69:9(요2:17; 롬15:3), 69:21(마27:34, 48), 69:22(롬11:9-10)

두 부류의 사람들: 1. 예수님 당시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들, 소수의 남은 자들,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물

드림, 예배드림(눅1:5-22의 사가라; 2:25-38의 시므온과 안나)
2. 그러나 대다수 종교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돈을 빼먹는 일에만 관심
원래 그들은 목자, 그런데 양들에게서 돈을 빼먹음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에게 맹렬한 저주를 선포하심(마
23:14-15).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 죽음
말 그대로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을 그분을 삼킴(17).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는 열심(18-22)

그분의 성전 정화, 종교인들의 당연한 질문(18),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라.

유대인들의 특징: 새로운 대언자가 나타나면 표적 요구, 모세의 귀환

당장에 표적을 요구함,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전1:22).

그래서 예수님 사역 당시 지도자들은 표적으로 보여 달라고 조름

요나의 표적만 보여 주심(마12:38-39), 죽음, 매장, 부활의 표적

음란한 세대(39절):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들어야 하는데 꼭 보여 달라고 함,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은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신다(19)

주님은 지금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이들은 육신적인 의미로 이해함

해룻 대제는 건축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음, 당시 스투바벨 성전(두 번째) 보기에

초라함, 금으로 장식한 성전 건축, 예수님 공생애 시작 AD 27년, BC 20년경 시작(46년 20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AD64년까지 지음,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됨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의도(21)

이것은 물론 그분의 죽음, 매장, 부활 사건, 부활 이후에 제자들 깨달음(22)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많다.

어린양(1:29), 대신속죄, 성전 파괴(2:19): 폭력에 의한 죽음

왜 성전인가?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희생 예물 드리는 것은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물리적 건물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함, 유다의 패망 직전 예레미야 시대 동일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의 귀중한 빌딩이 소멸될 것이라고 하자 종교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함(돈벌이 불가능)

그분 몸이 성전: 그러면 물리적인 성전 불필요: 그래서 더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음 예언(요

4:21). 그들의 율법 시스템 폐기(요1:16-17), 이제 은혜와 진리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린양(1:29), 그들의 성전(2:19)

그러면 새로운 예배 방식(요4장), 수가 성 여인

하나님의 열심

왕하19:31, 시69:9, 시119:139, 사9:7, 37:32, 63:15 등 구약에 몇 차례

열심, 열정, 사랑이 고도로 나타나는 것, 열정적인 것

사9:6-7,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신다(7).

시69:9,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두지 않는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다 열정의 사람들

가장 열정적인 사람: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시119:139, 말씀들이 붕괴될 때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함, 뜨거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후9:2)